

한국어에서 [f]의 음소적 지위에 관하여

On the phonemic status of [f] in Korean Language

김민규 · 진우영

*** KAIST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2학년

차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와 연구분야
3.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 3.1 설문조사

II. 이론적 배경

1. 언어학
 - 1.1 언어학과 음운론
 2. 한국어와 외국어
 - 2.1 외국어와 외래어
 - 2.2 외국어 학습과 코드믹싱

III. 연구 결과

1. 한국어 화자와 [f]
 - 1.1 한국어에서의 [f]의 역사 (고대에서 중세까지)
 - 1.2 한국어에서의 [f]의 역사 (근대에서 현재까지)
 - 1.3 한국인들의 [f] 접촉 추세
 - 1.4 한국어 대화 중 [f]의 사용 실태
 - 1.5 한국인들의 [f] 구별 비율
 - 1.6 현대 한국인의 [f]에 대한 인식
2. [f]의 음소적 지위 획득
 - 2.1 타 언어 사례
 - 2.1.1 프랑스어가 외래음소를 받아들인 사례
 - 2.1.2 힌디-우르두어어가 외래음소를 받아들인 사례
 - 2.2 한국어에서의 [f]의 음소적 지위 획득에 대한 전망
3. [f]의 한글 표기 정립 주장
 - 3.1 타 문자 사례
 - 3.2 새 자음 추가 논쟁
 - 3.2 반박
 - 3.3 견해

IV. 결론

참 고 문 헌
부 록

연구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화자들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무성 순치 마찰음 [f]를 변이음이 아닌 개별 음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과 이러한 현실을 어문 규정에 반영할 가능성에 대한 탐구다. [f]가 없는 자음 체계를 가진 한국어 화자들이 [f]를 개별 음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며, 외래 음운이 토착화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이다.

SUMM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e that Korean speakers, mainly among the young, started to accept voiceless labiodental fricative [f] as an independent phoneme—not an allophone—and to seek for possibility of change in the orthography regulation. It is a noticeable phenomenon that speakers of Korean language which has a consonantal system without [f] began to accept it as an independent phoneme, also a chance to observe the process of naturalization of foreign phoneme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무성 순치 마찰음 [f]는 한국어 화자들이 빈번하게 접하는 언어인 영어를 비롯하여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 수많은 언어에는 존재하나, 한국어의 자음 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f]와 가깝기라도 한 음운도 존재하지 않는다. 순치음은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마찰음인 'ㅅ'이나 'ㅎ' 또한 조음의 위치가 [f]로부터 멀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문교부 고시 제85-11호)에서는 [f]를 'ㅍ'으로, 자음 앞 또는 어말에서는 '프'로 옮기도록 사정하였다. 즉, [f]를 [p^h]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f]를 사용하는 외국어들을 접하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특히 '외래어'의 형태가 아닌 원어의 발음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잦아지자, 자연스레 [f]에 대한 노출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f]를 'ㅍ'이나 'ㅎ'과는 다른 음운으로 구별하는 화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나아가 한국어로 말하는 중에도 [f]를 사용하는 화자들도 생겨났다. 이글루스(egloos.com)의 블로거 끝소리의 제시¹⁾로 이 현상을 주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최근 100년

동안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 급속도로 변한 한국어가 영어를 맞이하며 새로이 변하는 부분 중에 중심에 있다 생각하여 고찰의 필요성이 느껴졌고, 이에 따라 현재 한국어에서의 [f]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게 되었다. [f]에 대한 새로운 표기법을 어문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는 현재, 한국어에서 [f]가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가와 이를 통해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문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 1) 한국어에서 [f]를 사용하는 현재 실태는 어떠한가?
- 2) 미래에 [f]가 한국어에서 음소적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가?
- 3) [f]를 위한 새로운 한글 표기법이 제정되어야 하는가?

한국어와 [f] 사이의 총체적인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이므로 한국어의 개별언어학뿐만이 아니라 언중과의 상호작용, 한글 또한 연구 대상이므로 제2언어 학습, 사회언어학, 문자학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f]를 대면하고 있는 한국어의 지금까지의 [f]와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조사하여 가까운 미래에 음소적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주장한다. 만약 [f]가 음소적 지위를 획득하게 될 경우 한국어의 음운 제약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가를 논한다. 또한 어문 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반박의 의견 또한 살펴본다.

먼저 우리는 [f]의 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플래시로 제작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f]의 사용과 인식에 관한 문항을 물어 이를 정리한다. 또한 다른 언어들의 사례를 조사하여 외국어의 음운이 언어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가를 알아보며, 한국어에서 [f]가 자리 잡게 될 위치를 예측하여 본다. 이에 따라 변하게 될 한국어 속 외래어들의 형태론을 수정한다. 마지막으로 [f]를 한글 표기에 도입하자는 지금까지의 찬반 담론을 정리한다.

3.1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플래시 파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정보로는 성별, 출생 년도, 영어 교육 시작 나이, 영어 접촉 경로, 영어 이전 접촉 외국어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설문조사 문항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1) <http://iceager.egloos.com/1612929>

Ⅱ. 이론적 배경

1. 언어학

1.1 언어학과 음운론²⁾

언어학(言語學, linguistics)은 인간 언어의 본질과 기능 그리고 그 변화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언어 전반에 걸친 과학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언어, 즉 과거와 현재의 언어뿐만 아니라 사어와 미개인의 언어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모든 언어가 그 연구대상이 된다. 또한 언어와 관련이 있는 다른 인접과학의 분야도 언어학의 연구시야에 들어온다.

음운론(音韻論, phonetics)은 언어학의 하위 분야로 말소리 혹은 어음의 기능과 체계 그리고 발음을 규제하는 규칙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음성학이 발음의 물리적인 형성과 인간의 인지를 연구하는 데에 비해 음운론은 주어진 언어 내에서나 범언어적으로 말소리가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연구한다. 음운론의 중요한 연구 분야 중의 하나는 한 개별 언어 내에서 어떠한 소리가 변별적(辨別的) 단위를 이루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ㅂ/, /ㅍ/, /ㅃ/는 변별적인 소리 단위이며 이들을 음소(音素, phoneme)라고 한다. 이들이 서로 다른 음소라는 것은 '불', '폴', '뿔'과 같은 서로 다른 의미를 지칭하는 최소대립쌍(最小 對立 雙, minimal pair)의 존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음소가 반드시 물리적으로도 동일한 것이 아닌데, 예를 들어, '바보'에서 앞의 'ㅂ'과 뒤의 'ㅂ'은 한국어에서 동일한 /ㅂ/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전자는 무성음 [p]로, 후자는 유성음 [b]로 발음된다. 이와 같이 어떤 음운이 단어 내의 위치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달라지는데 이를 변이음(變異音, allophone)이라고 부른다.

이 때, 의미를 구별하는 소리의 제일 작은 단위인 음소를 사선(/ /) 안에 표기하게 된다. 한편 음소가 아닌 음성을 기록하기 위해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체계인 국제음성기호(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이하 "IPA") 또한 존재한다. IPA는 대괄호([]) 안에 표기한다. (부록 1)

2. 한국어와 외국어

[f]에 관하여 고찰하기 전에, 한국어의 타 언어권과의 접촉, 외국어 학습 상황 그리고 외래어 차용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나열한다.

2.1 외국어와 외래어

2) 김방한(1995). 언어학의 이해. 민음사.

외국어(外國語, foreign language)는 '다른 나라의 말'을 뜻하며, 한국어가 아닌 모든 언어와 그 어휘의 총칭이며 외래어(外來語, loanword)는 '외국에서 들여와 국어처럼 사용하는 말'을 일컫는다.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이 큰 언어권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낱말을 주변 언어가 자주 받아들인다. 문화 중심지인 큰 언어권에서 새로운 사물이나 사상을 담아내는 단어가 활발히 만들어지면 그러한 개념을 수용하는 주변 언어권에서 그러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빌려 쓰는 것이 빠르다는 편리함 때문이다. 한국어가 고대에서부터 근세에 이르러 중국어에서, 근현대에 들어와 일본어와 영어를 비롯한 유럽 언어에서 많은 낱말을 차용한 것이 그 예이다.³⁾

그러나 외래어의 개념이 많이 쓰이고, 위에서도 한 가지의 정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외래어에 대해서 국어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새국어생활 2004년 여름호에 수록된 정희원의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임홍빈(1996)에서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분 짓는 기준은 '쓰임의 조건'과 '동화의 조건'이라 한다. '쓰임의 조건'이라 함은 해당 어휘가 우리말 문맥에서 널리 자주 쓰임을 뜻한다. '동화의 조건'은 음운 상으로 외국어 발음이 우리말 소리로 대치되고, 문법 상으로 원어에서 가졌던 성, 수, 격 등을 잃고 우리말에서 새로운 문법적 지위를 부여받으며, 의미 상으로 우리말 내에서 고유한 의미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뜻한다. 반면 정희원은 외래어의 개념을 재정의하여 임홍빈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름은 차용어로 삼고, 외래어는 '동화의 조건'을 거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자는 의견을 내놓는다. 이는 고유어보다도 훨씬 많이 쓰이면서 고유어와 의미가 거의 일치하여 외래어의 자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박스', '노트', '키'와 같은 어휘들을 외래어로 인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 정희원은 일반 언중이 외래 어휘라고 인식하게 되는 모든 어휘를 외래어로 설정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희원의 정의를 지지하기로 한다.

현재의 외래어는 모두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문교부 고시 제85-11호)에 따라 정해지며,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에서 표기를 심의하고 있다.

2.2 외국어 학습과 코드믹싱

코드믹싱이란 둘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에서 언어가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언어가 한 문장 내에서 사용되는 현상을 말한다. 홍콩과 같은 지역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영국의 치하에서 영어와 중국어가 혼용되게 된다. 게다가 중국어도 광둥 방언과 북경 방언이 난무하면서 다양한 코드믹싱의 사례가 발견되고 연구되었다.⁴⁾

한국어의 경우, 영어가 한반도에서 공용어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코드믹싱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코드믹싱을 하는 식자층에 의해 전달받은 '외래적' 성격을 띠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어 교육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즉

3) 한국일보 2006년 6월 27일 [말들의 풍경] <17> 우리말 안의 그들 말

4) Ho, J. W-Y.(2004). Code-mixing: Linguistic form and socio-cultural meaning. Language Society and Cultur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Society and Culture, Issue 21.

한국어의 나타나는 코드믹싱은 영어와의 접촉 또는 혼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 학습에서 말미암는다고 할 수 있다. 코드믹싱은 기존 언어가 가지고 있던 제약에 변화를 가지고 오는 등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고, 사회언어학적으로도 깊게 연구된다.⁵⁾

Ⅲ. 연구 결과

1. 한국어 화자와 [f]

1.1 한국어에서의 [f]의 역사 (고대에서 중세까지)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어에 [f] 음운이 존재했던 적은 찾아 볼 수 없다. 무엇보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경우 사료가 부족하여 음운을 파악하기 힘들다. 그나마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신라어의 음운 체계인데, /ㅍ/과 다른 어떤 음이 존재했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외에 [f]에 관해서는 더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없다. 설령 신라어에 [f]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중세국어로 넘어오면서 다른 음으로 치환되었을 것이다.⁶⁾

중세국어에서부터 한국어와 [f]의 역사에 관해 살펴볼 수 있다. 중세국어의 시기는 10세기에서 16세기까지 700년 동안 걸친다. 이 시기는 14세기를 경계로 전기와 후기로 양분된다. 전기 중세국어의 시기는 대체로 고려 왕조에 해당하며 후기 중세국어의 시기는 조선 왕조의 처음 200년에 해당한다. 전기 중세국어는 주로 한자로 표기된 자료에 의하여, 후기는 주로 훈민정음 자료에 의하여 대표된다.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인 14세기는 정치적인 이유나 훈민정음의 창제가 큰 관련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14세기에 국어의 음운체계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⁷⁾

전기와 후기를 통틀어 중세국어에서 [f]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자음은 역시 순경음 비읍 /ㅍ/이다. 중세국어에서 /ㅍ/는 양순 마찰음 [β]였으며 'ㄹ', 'ㅅ' 그리고 모음 사이라는 특이한 환경에만 존재했다. 이 글자는 『月印釋譜(1459)』까지 존재하였으나 『楞嚴經諺解(1462)』 이후 소멸하여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β]에 해당하는 발음이 훈민정음을 만든 바로 직후부터 빠르게 소멸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전기 중세어의 한자 표기 자료에는 /ㅍ/의 표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중세국어에도 /ㅍ/이 독립적인 음소로 존재했는지에 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다. 전기 중세국어의 한자 표기 자료에선 /ㅍ/과 표기상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ㅍ/을 독립적인 음소로 취급하지 않는 학자(김종훈, 김동소 등)가 있는가 하면 한자 표기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독립적인 음소로 취급하지 않는 것은 속단이라는 학자(이기문, 김무림 등)도 있다.⁸⁾

5) Auer, P.(1998). Code-Switching in Conversation: Language, Interaction and Identity. Routledge.

6) 이기문(2006). 국어사개설. 태학사.

7) 이기문(2006). 국어사개설. 태학사.

훈민정음 체계에서 /브/은 순경음(脣輕音)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말에서 /브/은 실제로 [β]였고, 중국어에서의 순경음은 순치음 [f], [v] 등이었으므로 중국인들의 청각 인지에는 /브/은 오히려 순중음(脣重音) [p], [b]에 더욱 가깝게 들렸을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즉 한자에서 /브/과 /뽀/을 달리 표기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전기 중세어에 /브/는 존재했지만 표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⁹⁾

오음	각(角)	치(徵)		우(羽)		상(商)		궁(宮)	반정	반상
오행	목(金)	화(火)		수(水)		금(金)		토(土)	반화	반금
칠음	아음	설두음	설상음	순중음	순경음	치두음	정치음	후음	반설음	반치음
전청	見 ㄱ k	端 ㄷ t	知 ㄷ ʰ t	幫 ㅂ p	非 ㅍ f	精 ㄷ ts	照 ㄷ tʰ	影 ㅇ ʔ		
차청	溪 ㅋ k'	透 ㅌ t'	徹 ㄷ ʰ t'	滂 ㅍ p'	敷 ㅍ f'	淸 ㄷ ts'	穿 ㄷ tʰ'	曉 ㅇ x		
전탁	群 ㄱ g	定 ㄷ d	澄 ㄷ ʰ d	並 ㅂ b	奉 ㅍ v	從 ㄷ dz	牀 ㄷ dz'	匣 ㅇ ɣ		
불청불탁	疑 ㅇ ɦ	泥 ㄴ n	孃 ㄴ ɦ	明 ㅁ m	微 ㅁ w			喻 ㅇ ɦ	來 ㄹ l	日 ㄷ ɦ
전청						心 ㅅ s	審 ㅅ ʰ s			
전탁						邪 ㅅ z	禪 ㅅ ʰ 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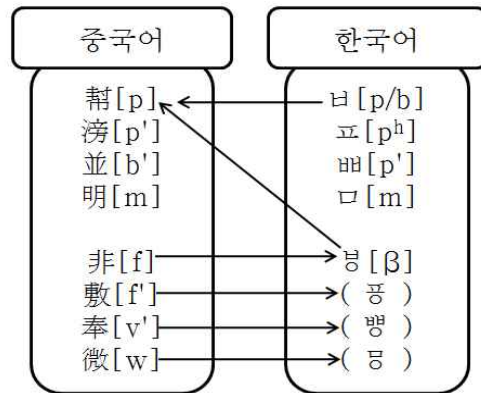
〈표 Ⅲ-1〉 『집운』의 36자모표

반면, 중국음에는 순치음이 존재함은 쉽게 알 수 있다. 〈표 Ⅲ-1〉과 같이 당시 중국어에는 [f] [f'] [v] [w]가 존재하였고, 이를 각각 훈민정음으로 표기하기 위해 순음에 'ㅇ'을 연서하여 순경음 글자들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를 도식하면 [그림 Ⅲ-1]과 같아진다. 요약하자면, 훈민정음 창제 당시, 전기 중세국어에는 [β]이 존재하였으며, 이 마찰음이 양순 파열음과 다르다는 것을 지각하고 있었으나, 순치 마찰음과는 같은 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음의 순치음 [f]를 /브/을 통해 표기하던 것이다. 나아가 이 글자와 함께 연서법을 통해 'ㅍ', 'ㅍ', 'ㅍ' 등의 표기법도 개발되었다.

8) 조규태(1998). 여린 비음(ㅍ)에 대하여. 한글학회, 한글 제240호, 241호.

9) 조규태(1998). 여린 비음(ㅍ)에 대하여. 한글학회, 한글 제240호, 241호.



[그림 Ⅲ-1] 전기 중세국어와 중국어

그러나 후기 중세국어에 이르러서, 1450년대까지만 이 글자가 쓰이고 빠르게 소실되었다. 전기 중세국어에 존재했던 [β]는 [β] > [w]로의 변화를 거치게 되었고, [β]을 포함하던 낱말 거의 다 [w]로의 변화를 가졌다. (예: 도바(助) > 도와, 셔불(京) > 서울, 더버(暑) > 더워, 고바(麗) > 고와) 한글에서 수정 이에 따라 연서법도 사라지고 한국어에서 순치음과 관련된 흔적은 자취를 감추었다.¹⁰⁾

1.2 한국어에서의 [f]의 역사 (근대에서 현재까지)

[f]와 완전히 떨어진 한국어는 다시금 [f]와 직면하게 되는 사건이 생긴다. 그것은 바로 영어의 유입이다. 한국어 화자의 첫 영어 접촉은 1855년 이루어졌다. 1982년 2월 15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반도에 온 첫 미국인의 차림새를 그리고 문자와 발음을 받아 적은 그림과 글을 1935년 10월호 신동아(新東亞)에서 발견했다고 한다. 이들은 강원도 통천에 표류한 미국인과 영국인 선원 4명으로, 풍랑에 휩쓸려 배가 전복되어 통천 해안에 표착했다. 이들을 서울로 불러 신문하고 글자를 물었다. (부록 3)

“ 애(A) 뷔(B) 쉬(C) 덕(D) 의(E) 압뽕(F) … 얼시(X) 위(Y) 송식(Z)
 (Sun) 쓰개(Sky) 옛(Earth) … 붓(Foot) 뵤안(Fan) ”

위의 자료를 보면, 근대 한국어 화자는 [f]를 'ㅂ' 또는 'ㅍ'으로 표기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눈 여겨 볼만한 것은 '압뽕(F)'이다. 모음 뒤 자음은 비음, 유음이 아니면 불파음으로만 실현되는 한국어의 화자가 마찰음으로 끝나는 발음을 듣게 되어, 이에 모음 'ㄱ'을 추가하여 나타낸 것이다. 추가된 모음이 원순 모음이고, 'Fan'을 '뵤안'으로 표기한 것을 보면 'ㅂ', 'ㅍ'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마 양순 파열음보다 순치 마찰음에 경우 입술이 더 긴장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원순성을 첨가하여 적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 경향은 현대까

10) 이기문(2006). 국어사개설. 태학사.

지도 남아 있어 “파이야”와 같이 'fa'를 '파'로 적는 등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개화기를 지나 [f]를 포함한 영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다양한 유럽 언어들과도 접촉이 늘자 외국어의 소리를 적는 문제에 대해 학자들은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국어에 없는 발음이 외국어에 있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자 학자들의 다음 생각은 바로 한글을 개조하여 새로운 글자를 추가하는 것이었다. 당시(19세기 말~20세기 초)가 바로 한글 체계가 상당한 혼란을 보여 그 정비가 절실한 문제로 등장할 때여서 이에 관한 논쟁은 더욱 활발했다.¹¹⁾ 고유어 및 방언 표기를 중심으로 모음의 추가를, 외국인명표기를 중심으로 자음의 추가를 주장하는 쪽이 있는 한편 필요 없는 글자를 삭제하고 자모를 추가하지 않으려는 입장도 격렬했다. 24자모 외에 새 글자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것은 '태서신스(1897)'이다.¹²⁾ 이 책을 번역하면서 한자 표기된 서양인의 인명이 원음과 크게 동떨어져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부록으로 한글로 표기된 서양인의 인명과 한자 표기를 비교한 표를 삽입하는데, 프랑스의 수도 'Paris'의 경우 뜻 '法部'와 한자식 표기 '巴黎'와 함께 한글 발음 '파리스'를 달아놓는 식이었다. 이 표에서 주의를 끄는 것은 [f], [v], [l], [θ] 등의 표기다.

f	프랑스 제퍼슨	法蘭西 遮非孫	國 美使	France Jefferson
v	볼테아 베르세일스	福錄特爾 斐賽	法名士 法地	Voltaire Versailles
l	나폴레옹 런던	拿坡崙 倫敦	法王 英部	Napoleon London
th	노르씨 셰르리힘	北海 伯利恒	海 太地	North Sea Bethlehem

〈표 III-2〉 태서신스(1897)의 한글 표기

마침내 1930년대에 이르러서 외래어 표기법이 갖추어지기 시작한다. 외래어 표기법의 역사에 관해서는 두산백과사전의 “외래어표기법” 항목과 새국어생활 2004년 여름호에 수록된 박창원·김수현의 “외래어 표기 양상의 변천”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여기서는 외래어 표기 시 새 자음을 추가한 것에 대하여 집중하여 서술한다.

1935년 〈한글〉 제3권 6호에 실린 이극로의 “외래어 표기에 대하여”는 외래어를 표기하는 것을 최초로 다룬 글로 알려져 있다. 이 글에서 이극로는 1933년 제정된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외래어 표기에 “새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정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외래어가 우리말에 들어오는 때에는 우리화를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어느 민족의 말이나 외래어를 자기화(自己化)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다.”

11) 이기문(1996). 현대적 관점에서 본 한글. 국립국어원, 새국어생활 제6권 2호.

12) 이기문(1996). 현대적 관점에서 본 한글. 국립국어원, 새국어생활 제6권 2호.

즉, 외래어는 우리말에 들어와 우리 말소리의 원칙에 맞게 다듬어졌기에, 원어의 발음에 가깝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 원칙을 유지하며 외래어 표기 조항은 세밀화되어 1941년 1월 15일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 이른다.

8·15광복 이후에는 1948년에 최현배의 주도 아래 문교부에서 「들온말 적는 법」을 심의하고 결정했다. 이전에 제정된 통일안과 달리 외국어의 원음을 표기에 반영하기 위해 외래어 표기법 제정 이전에 보이던 한글 자모 이외의 글자나 부호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f]를 'ㅍ', [v]와 [β]를 'ㅂ'으로, [z]와 [ʒ]를 'ㅈ'으로, [l]을 'ㄹ'로 표기한다. 또한 파열음의 된소리 표기를 인정하며, 장모음을 표기에 반영한다. 이와 같이 <들온말 적는 법>(1948)의 원음주의에 의한 표기 체제는 새로운 문자나 기호를 사용하여 국어에 없는 음운을 표기하는 등 외래어 표기법 제정 이전의 단계로 되돌아간 상태가 되었으며, 원칙과는 별도의 표기가 존재하고 전문적이며 복잡하여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게 된다.

결국 이 표기법은 현대에 이르러 재검토되며, 문교부는 1948년에 제정된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8년 <로마 자의 한글화 표기법>을 확정, 발표한다. 이는 1941년의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계승한 것으로 '외래어 표기에는 한글 정자법(正字法)에 따른 현용 24자모만을 쓴다.'는 원칙을 제일로 삼게 된다. 이 표기법은 굳어져 현 <외래어 표기법>에 이르게 된다. 마찬가지로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를 제1항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f]는 모음 앞에서는 'ㅍ'로, 자음 앞과 어말에서는 '프'로 일정하게 옮길 수 있게 된다.

1.3 한국인들의 [f] 접촉 추세

지금까지 설명된 것과 같은 역사를 가진 [f]와 한국인들과의 접촉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한국인들이 접하는 언어는 한국어에 이미 들어온 외래어들을 통해 그 접촉 빈도를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어	외래어 어휘 수	비율 (%)	원어	외래어 어휘 수	비율 (%)
영어	9,005	78.5	그리스어	76	0.7
일본어	749	6.5	네덜란드어	65	0.6
독일어	535	4.7	포르투갈어	35	0.3
프랑스어	363	3.2	스페인어	31	0.3
이탈리아어	268	2.3	러시아어	29	0.3
라틴어	78	0.7	기타 (중국어 등)	231	1.9
총합	11,465	100	총합	11,465	100

〈표 III-3〉 배양서(1970)의 외래어 사전 표제어들의 원어 분석 통계

〈표 III-2〉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접하는 언어로는 영어가 단연 1위를 차지하고 그 아래로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이 차지한다. 라틴어의 경우 실제로 접촉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도 외래어의 형태로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인들이 많이 접하는 언어는 유럽의 언어들과 중국어, 일본어로 정리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여기 나열된 모

든 언어에 [f]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본어는 [f]가 존재하나 [f]와 거의 같은 음인 [ϕ]가 존재한다.)

한국인들의 접하는 외국어에 [f]가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외래어' 형태가 아닌) 외국어의 접촉 빈도 또한 계속해서 늘고 있다. 먼저, 간접적으로 외국어를 접할 수 있는 경로인 영화를 예로 들어 볼 수가 있다. 현재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 중 애니메이션이나 다큐멘터리를 제외하고는 더빙 영화를 찾아 볼 수가 없다.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영화 또한 케이블 채널을 중심으로 더빙 보다는 자막을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텔레비전 광고 등을 통해 외국어가 무분별하게 나오면서 못 한국인들은 무의식적으로 [f]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상황은 '영어몰입교육'이 대세인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 현재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를 둔 학부모는 전체 83.1%로 나타나 영어교육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학습자의 연령은 6-7세가 37.8%로 가장 많아 사교육을 통해서라도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이는 대도시로 갈수록 더욱 낮아지게 되는데, '영어 유치원' 등의 유행으로 많은 경우 3-4세까지도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2006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조기 해외 유학생 수 또한 2001년 7944명에서 2005년 20500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원어의 환경 내에서 학습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공교육에서도 드러나게 된다. 교육부는 본래 영어교육을 초등 3학년에 시작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초등 1학년부터 시작하기로 교육 과정을 변경하며 원어민 교사와 영어교과 전담교사의 수 또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언어 습득 최적의 시기이라고 여겨지는 3세~7세에 영어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한국인들의 영어 실력은 물론, [f]를 포함한 발음 실력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영유아기인 아이들이 성장한 2030년, 2040년에는 거의 모든 한국인이 [f]를 쉽게 구별해낼 것이라 전망된다.

1.4 한국인들의 [f] 구별 비율

설문조사 항목 중 3번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에서 추출한 열두 개의 음성 파일을 들려준 뒤 중간에 [f]가 존재하였는가를 물어 피조사자들의 [f] 구별 능력을 시험하였다. 그에 앞서 1, 2번 문항을 이용해 주관적인 본인의 [f] 구별 능력에 대한 물음에선 81%의 응답자가 구분하여 들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87%의 응답자가 구분해서 소리 낼 수 있다고 했다.

[f]가 모음 앞에 오는 쉬운 영어 단어의 경우 87%의 응답자가 정답을 맞혔다. [f]가 자음군 안에 들어 있는 러시아어 단어도 87%의 정답률을 보였으나 [f]가 모음 뒤에 와 어말을 형성하는 독일어 단어의 경우 이 비율이 82%로 내려가고 생소한 언어인 이디시어에서는 70%를, 유성 구개수 마찰음과 같은 생소한 발음과 함께 자음군을 형성한 프랑스어 문장에서는 56%

13) 신동주(2004). 초기영어교육에 대한 현황분석 및 교사, 학부모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간 차이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를 보였으며 광둥어 낱말에서는 40%까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f]의 발현 환경과 음성 파일의 음질에 따라 인지율이 90%에서 40%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쉬운 영어단어와 같은 흔히 접하는 부분에서는 쉽게 구별해낼 수 있지만, 아직 그 능력이 완벽히 다져진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f] 대신 [p]가 존재하는 영어단어 두 개는 각각 91%, 82%가 그러하다고 하였으나 이탈리아어 단어에서는 정답률이 56%에 그쳤다. [f]도 없고 [p]도 없는 중국어 단어에 대해서는 쉽게 눈치 채어 95%가 정답을 맞혔다. 반면 일본어의 [ϕ] 음운에 대해서는 9%가 [p], 76%가 [f], 15%가 [p]도 [f]도 아니라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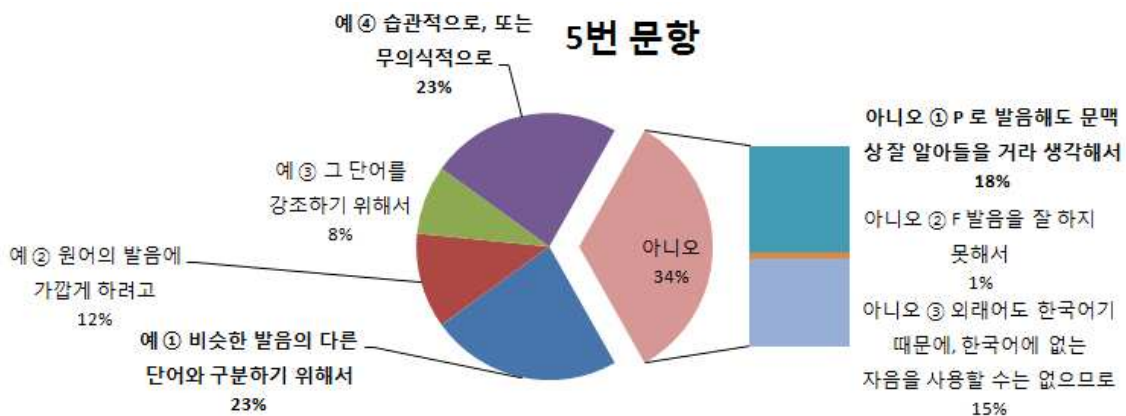
언어	낱말/문장	정답률
영어	fear and loathing	87
러시아어	антифриз(antifriz)	87
독일어	Düsseldorf	82
이디시어	hesofe	70
프랑스어	Je comprends un peu le français.	56
광둥어	文化遗产(man4 faa3 wai4 caan2)	40
영어	plight	91
영어	split hairs	82
이탈리아어	probabilistico	56
표준북경어	面临困难(miànlínkùnnán)	95
스웨덴어	Jag talarintsvenska.	93
일본어	海辺のカフカ(Umibe no Kahuka)	(15)

〈표 III-4〉 3번문항 낱말 별 정답률

1.5 한국어 대화 중 [f]의 사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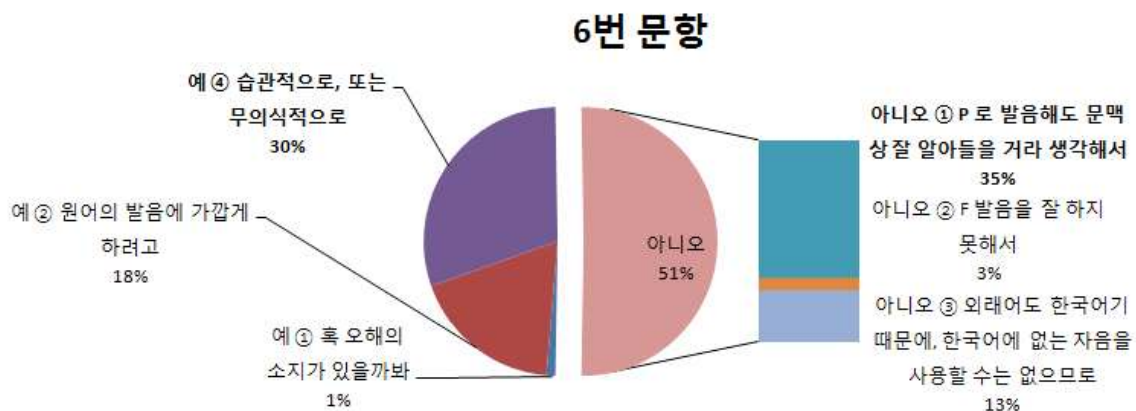
설문조사 항목 중 5~8번은 피조사자의 한국어 대화 중 [f]의 사용에 관한 문항이었다. [f]가 외래어 속 들어있는 환경에 따라 [p]와 대립하는 경우(5번), 어두에 존재하는 경우(6번), 어중 또는 어말에 존재하는 경우(7번)으로 나누어 [f]의 사용 빈도를 물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한국인들은 본래 [p^h]로 발음하여야 할 자리에서 [f]를 발음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를 과잉수정(hypercorrection)이라고 하는데¹⁴⁾, 8번 문항에서 이에 관하여 물었다.

14) 김현주(2008). 발음 오류에 대한 원인 분석과 교육 방법 모색: 한국인 프랑스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프랑스어문교육 제28집 7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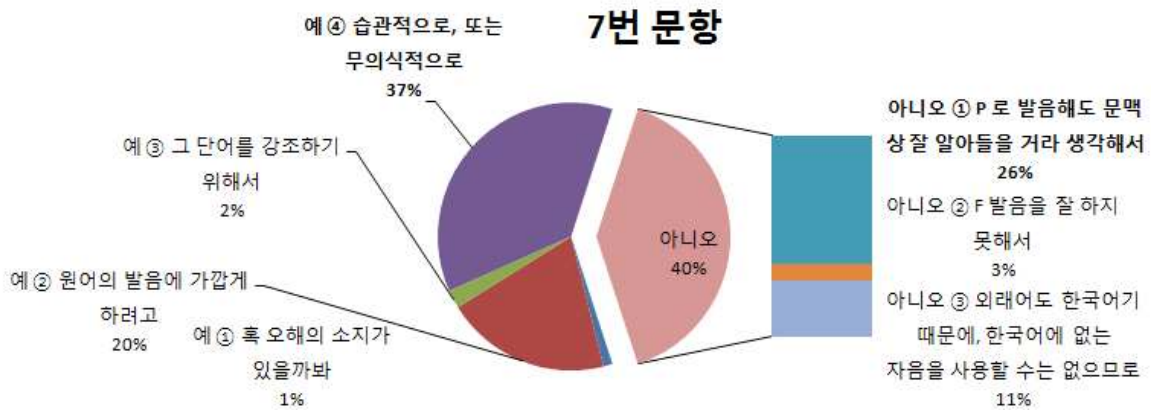
[그림 III-2] 5번 문항 응답 통계

5번 문항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았다. [p]와 대립쌍을 가지고 있는 [f] 포함 외래어들에 대해서 [f]를 사용하는 사람은 총 66%로, 그 이유로는 '비슷한 발음의 다른 단어와 구분하기 위해서'와 '습관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가 각각 2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f]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총 34%였으며, 그 이유로는 'P로 발음해도 문맥상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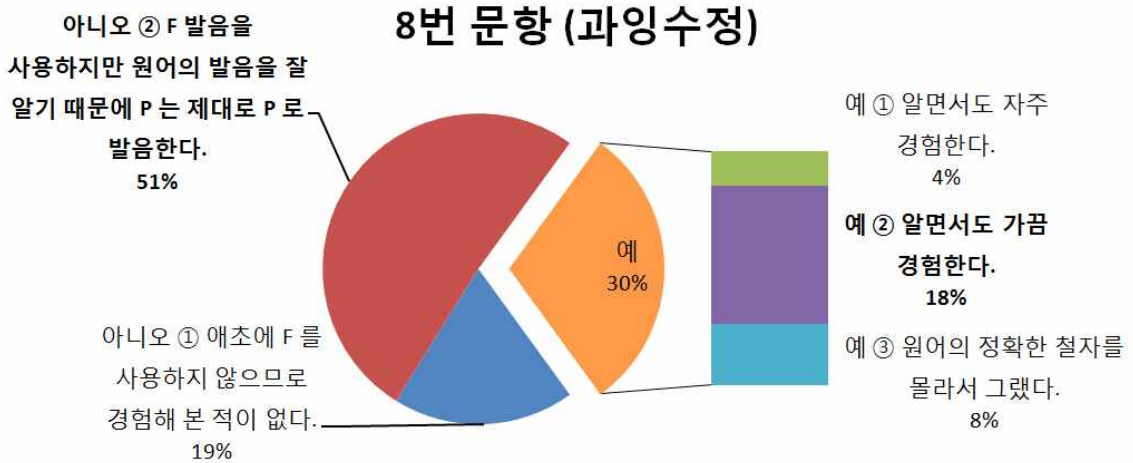
[그림 III-3] 6번 문항 응답 통계

6번 문항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았다. [p]로 대치되어도 의미의 변화는 없는 외래어 중 [f]가 어두에 오는 경우, [f]를 사용하는 사람은 총 49%로, 습관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한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5번 문항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 때문에 [f]를 사용한다는 답변이 많았던 반면, [p]로 대치되어도 의미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이 항목에 대한 답변수가 1%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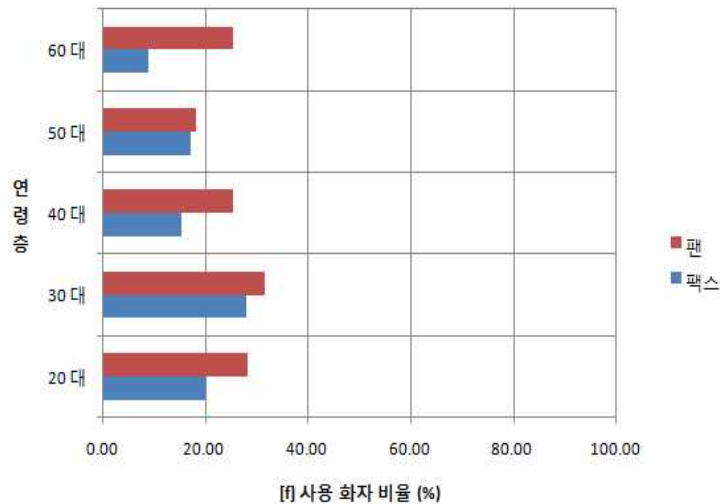
[그림 III-4] 7번 문항 응답 통계

7번 문항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다. [f]가 어중 또는 어말에 오는 경우 [f]를 사용하는 사람은 총 60%로, 이번에도 습관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한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 중에서도 문맥상 잘 알아들을 거라 생각했다는 사람이 제일 많았다. 6번과 7번을 비교해 보면, [f]가 어두에 존재하는 경우보다 어중이나 어말에 존재하는 경우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한국인이 특히 '프'로 쓰여 있는 곳(예: fl, fr과 같은 자음군, 어말 f 등)에서 주로 [f]음을 내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이에 관한 후속 연구를 해봄직하다. [f]를 주로 사용하는 환경이나 어휘에서 [f]의 인지적 특성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림 III-5] 8번 문항 응답 통계

[f]의 과잉 수정에 관한 8번 문항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다. 51%에 해당하는 답변자가 [f]를 사용하면서도 과잉수정 현상을 겪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f]가 목표음(target sound) 단계를 벗어나 완전히 학습되었다는 결과이다. 한편, 아직 과잉 수정 현상을 겪는 답변자 또한 30%로 만만치 않게 많았다.



[그림 III-6] [f] 사용 화자 비율 (국립국어원)

위에서 본 [f] 사용 수치나 과잉 수정의 수치가 평균 연령이 24세인 조사 집단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국립국어원 보고서 '외래어 발음 실태조사'의 '팬(fan)'과 '팩스(fax)'의 발음 실태를 분석해본 결과를 보면 50~60대도 20~30%의 비율로 [f]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II-8) 또한 본 설문조사 결과와 아울러 보면, [f]를 사용하는 경향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결론도 내 볼 수 있다.

이러한 [f]의 사용은 한국어에 [f]가 없다는 전제 아래서 보자면, 한국어 어휘에 포함되지 않는 발화를 한 것이므로 외국어가 코드믹싱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자.

ㄱ. 함께 풋볼 경기를 관람합시다.

만약 여기서 풋볼을 /푼뽀/, [p^hutp'ol]로 발음한다면, 외래어를 사용한 것으로 순수 한국어 발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이거나 2개 국어인 사람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코드믹싱 사례를 통해 보면, '함께 ~ 경기를 관람합시다.' 부분은 정상적인 한국어 발음으로 발화를 하면서 '풋볼'은 영어 발음 그대로인 [fʊtbo:l]을 사용한다. 즉 아래와 같이 어휘 수준의 코드믹싱이 적용된 것이다.

ㄴ. 함께 풋볼[fʊtbo:l] 경기를 관람합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어 화자들과 위 설문조사에 응답한 피조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발화를 한다.

ㄷ. 함께 풋볼[futp'ol] 경기를 관람합시다.

여기서 [futp'ol]은 한국어 어휘 집단에도, 영어 어휘 집단에도 포함되지 않는 어휘가 된다. 한국어에 [f]가 존재하지 않는 음소라는 전제가 의심되는 순간이다. 영어 발음이 더 자연스럽게거나 영어 발음에 더 가까이 하려는 게 아니므로 자신이 한국어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영어의 정확한 발음을 알고 있는 화자도 한국어의 음운 제약에 따라 [ɔ]나 [ɔ:] 과 같은 원어의 발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따라서 [f]를 한국어의 금지 음소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f]가 한국어의 음소인가 아닌가는 이와 조금 다른 문제이다. [f]가 음소로서의 지위를 얻으려면 다른 단어와의 최소대립쌍이 존재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최소대립쌍을 관찰할 수 있다.

ㄹ. 팬[p^hɛn]은 프라이팬이 팬이고 그건 팬[fɛn]이지.

두 '팬' 모두 외래어로서 한국어의 단어로 생각하고 있는 화자는 이 두 단어를 구별하기 위해 [f]를 사용한다. [f]를 사용하면서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대립쌍을 형성시키는 것은 코드 믹싱 단계를 넘어서 한국어에서도 [f]를 'ㅍ'과 다른 하나의 음소로 취급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ㅍ'과 /f/가 대립하는 최소대립쌍은 위에서 든 예와 같이 외래어 사이에서 볼 수 있으며, 외래어가 아닌 쌍도 제시할 수 있다. 파지(破紙)와 파지(phage)의 경우, /f/를 인정할 경우 이 둘은 최소대립쌍이라 할 수 있다.

1.6 현대 한국인의 [f]에 대한 인식

1.3에서 논의되었듯이, 현대 한국인들 중 [f]를 구별하여 듣고 발음하는 사람의 수가 상당히 많으며, 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명히 다수의 사람들이 [f]와 그 조음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설령 [f]를 구별하지 못하거나, 발화 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외래어의 기저 형태에 [f]가 다른 음소들과 구별되어 존재함은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국어 발화 중 [f] 사용에 관한 문제가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 외래어를 발음할 때에 한국어에 없는 자음을 섞어서 발음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주관식 문항 10번의 답변 100개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상관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한 사람이 73명(73%)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27명(27%)에 비해 훨씬 많았다. 이는 수치는 평균 연령이 24세였던 조사 대상군이 상대적으로 변화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젊은 세대가 많아서 더욱 편중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생활의 경우 정치적인 문제와는 달라서, 나이를 들어서도 이러한 생각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설령 현재 기성세대의 [f] 사용에 대한 입장이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젊은 세대가 성장하여 기성세대가 되면 전체 국민 중 다수가 발화 중 [f]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반면 외래어가 아닌 한국어에 [f]를 삽입하여 발음하는 것에 대한 주관식 문항인 11번의 답

변들을 분석해 본 결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답변이 거의 없었다. 단례로, 2005년 유행했던 MBC 드라마 <안녕, 프란체스카>에 나오는 여배우 박희진('안성택' 역)은 “황당한 시추에이션~”이라는 유행어로 유명했는데 이 유행어를 사용하는 묘미는 “황당한”의 '황'에 [h] 대신 [f]를 넣어서 발음하는 데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유행어를 따라하며 한국어에는 없는 [f] 발음을 사용했다. 이와 같이 웃음의 소재로 사용되거나 유행어 등에 한정적인 경우만 '그럴 수 있다'는 반응이었고, 역지로 고유어에 존재하는 '표', '뽀'이나 'ㅎ' 등에 [f]를 사용하는 것은 언어 파괴라는 의견이 절대다수였다.

발음에 [f]를 일정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곧 표기법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설문조사의 12번 문항에서는 [f]를 '표,프'로 옮기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생각을 물었고, 13번에서는 [f]에 해당하는 새 한글 자음 추가에 대한 생각을 물었으며, 이에 찬성한다고 대답한 사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후보군을 제시하며 마음에 드는 글자를 선택하라고 하였다.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결과를 분석해보니 12번 문항에서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 '① 좋다고 생각한다.'를 선택한 사람이 무응답 6명을 제외한 94명 중 34명(36.2%)에 불과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 이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f]를 '표'와 구별시켜줄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3번 문항에서 [f]를 위한 새 한글 자음을 추가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 수는 98명 중 33명(33.4%)에 불과했다. 이들에게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글자는 '표' 위에 가로획을 그은 '표'이었으며 그 다음으론 '표' 위에 점을 찍은 '표'와 '표'이 많은 표를 받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f]이 '표'과 다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으나 이를 위해 새로운 한글 자음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선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f]의 음소적 지위 획득

2.1 타 언어 사례

한국어와 외국어가 접촉하면서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음소인 [f]가 한국어에 스며들지에 관한 고찰은 다른 언어들의 사례를 먼저 탐구해 봄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우리말과 같은 상황에서 [f]를 '외래음소(xenophoneme)'라고 부르기도 한다.¹⁵⁾ 외래음소를 받아들여 토착 언어의 언어생활에서 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심심찮게 관찰할 수 있다. 우리는 비교 대상으로 프랑스어와 힌디-우르두어를 제시한다.

2.1.1 프랑스어가 외래음소를 받아들인 사례

15) Luciano Canepari(2007). A Handbook of Pronunciation, Lincom GmbH

1066년 노르망디공 윌리엄의 잉글랜드 정복 이후 수백 년간 영어에 간섭했던 프랑스어는 20세기 들어 미국의 패권이 나날이 강해지며 거꾸로 영어의 간섭을 받고 있다.¹⁶⁾ 그 대표적인 예로 영어의 음소 연구개 비음 /ŋ/을 꼽을 수 있다. 이 자음은 한국어의 종성 'ㅇ'에 해당하는 발음이다. 한국어에 존재하는 프랑스어 유래 외래어에 존재하는 종성 'ㅇ'는 본디 프랑스어에 비모음으로 실현되는 것을 흉내 낸 것일 뿐이다. (예: 앙상블 'ensemble' [ɑ̃sɑ̃bl]) 그런 프랑스어가 영어의 folk-song이나 parking 같은 어휘를 받아들이며 프랑스어 화자들이 비모음이 아닌 연구개 비음으로 발음하고 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본디 프랑스어에서 영어 어휘를 받아들일 때에는 /θ/를 /s/로(퀘벡에서는 /t/로), /ʌ/로 치환하여 발음하곤 했으나, 외래음소인 /ŋ/를 그대로 발음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실제로 프랑스어의 자음 체계를 보면 /ŋ/을 발음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양순 비음, 치경 비음, 경구개 비음이 존재하고, 유성·무성 연구개 파열음이 존재하는 형태에서 /ŋ/을 발음하는 것은 그저 빈칸 채우기에 불과할 뿐이다. Walter(1983)은 이 문제를 지적하며 다양한 지역과 연령대의 프랑스어 화자의 외래어 발음 경향을 알아본다. Walter에 의하면 영어의 연구개 비음은 [n], [ng], [ɲ], [ŋ], [ŋ^h], [ŋ^ʷ] 내지는 비모음으로 발음한다고 한다. 그 중 [ŋ]이 77%로 가장 많은 비율로 차지하는 것을 보아 프랑스인 대부분이 영어의 -ng를 [ŋ]으로 발음함을 알 수 있다.¹⁷⁾ 이와 같이 차용어에서 원어의 발음 중 따라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다.

2.1.2 힌디-우르두어가 외래음소를 받아들인 사례

O'Brien(2006)은 힌디-우르두어는 아랍어, 터키어, 페르시아어, 영어와 접촉하면서 수많은 외래어와 외래음소를 맞닥뜨렸다고 한다. 그 중 /q/, /x/, /ɣ/, /f/, /z/, /t/, /d/, /θ /, /ʃ/에 관하여 최적성 이론을 통해 힌디어에 어떤 음운으로 대체하는지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중 페르시아어, 터키어, 아랍어에서 들어온 음소 /q/, /x/, /ɣ/, /f/, /z/가 영어에서 들어온 음소 /t/, /d/, /θ /, /ʃ/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힌디어를 표기하는 데바나가리(देवनागरी, Devanagari) 문자에 음소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페르시아어를 표기하기 위해 녹타(nukta)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문자 왼쪽 아래에 점을 찍어 힌디어에는 없는 /q/, /x/, /ɣ/, /f/, /z/를 표기하도록 했다.¹⁸⁾

이로 인하여 힌디어 화자들은 외래 음소의 존재와 구별에 관해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을 발음할 수도 있다. Shapiro(2003:260)에 따르면 /f/가 힌디어의 고유어에도 침투하여 고유어의 /p^h/를 일정하게 /f/로 발음하는 화자도 존재한다고 한다.¹⁹⁾ 이 점은 한국어에 견주어 볼만 하다.

16) 한국일보 2006년 6월 27일 [말들의 풍경] <17> 우리말 안의 그들 말

17) Walter, H.(1983). La nasale vélaire /ŋ/, un phonème du français?. Langue française, Vol. 60.

18) O'Brien, J.(2006). Foreign Consonants in Hindi.

19) M. C. Shapiro(2003). The Indo-Aryan Languages, Routledge, pp. 260

힌디 음소	기본문자	페르시아 음소	눅타 문자	힌디 음소	기본 문자	페르시아 음소	눅타 문자
k	क	q	क़	p ^h	फ	f	फ़
k ^h	ख	x	ख़	j	ज	z	ज़
g	ग	ɣ	ग़	r	ढ	r ^h	ढ़

〈표 III-5〉 힌디어의 눅타 문자

2.2 한국어에서의 [f]의 음소적 지위 획득에 대한 전망

위에서 [f]가 한국어에 음소로 자리 잡음을 설명하였으나, 이는 규칙적으로 [f]를 사용하는 화자들에게 있어서 한정적인 것이다. 이것이 미래에 화자 대부분으로 퍼질지 그 반대가 될지는 주사위에 달린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이러한 화자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영어 교육이 극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f]를 음소로 받아들이는 화자의 비율은 절대적으로 증가하리라 생각된다. 이 증가가 곧 한국어에서의 [f]의 음소적 지위를 확고히 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문 규정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의미가 있어지는데, 그에 관한 논박을 살펴보고자 한다.

3. [f]의 한글 표기 정립 주장

3.1 타 문자 사례

2.1.2에서 다루었듯이, 힌디어에서도 외래 음소를 표기하기 위해 데바나가리 문자에 눅타를 만들어 원래 있던 글자에 점을 찍는 방식으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 이는 '표'에 점을 찍거나 가로획을 그린 글자가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설문조사의 결과와 상통하는 점이자, 훈민정음의 가획원리를 닮았다고 할 수 있다.

고유어에는 [f]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문자에는 [f]가 있는 언어들에는 로마자를 사용하는 언어들 사이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핀란드어(Suomi)다. 핀란드어의 경우, 유럽 대륙에 존재하면서도 우랄어족의 핀-우그리아어파에 속하여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기반으로 하는 유럽 언어들과 큰 이질감이 있으며 [f]가 존재하지 않는 음소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핀란드어가 로마자로 표기되기 때문에, 핀란드어 알파벳에는 로마자 26자가 모두 포함되고, 이에 따라 핀란드어에 필요 없는 글자인 B, F, Q, X, Z 등이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f]가 포함된 외래어들은 핀란드어에서 'v'나 'hv'로 옮겨지며 [v] 또는 [hv]로 발음된다. 예를 들어, '커피'를 뜻하는 스웨덴어인 'kaffe'는 핀란드어에서 'kahvi'로 옮겨지며 [kah.vi]로 발음된다. 그러나 [f]가 문자 체계에 존재함에 따라 최근 유입되는 외래어에는 그대로 'f'로 옮겨지는 경우가 있다.²⁰⁾ (예: 'asfaltti' 아스팔트, 'uniformu' 유니폼, 'Afrikka' 아프리카,

20) Campbell, Lyle(2004). Historical linguistics. 2nd ed. MIT Press. Wikipedia "Finnish alphabet"문서

'fysiika' 물리학, 'sinfonia' 심포니) 그러나 보수적인 표기에선 이들도 어김없이 'v'로 옮겨지곤 한다. (예: 'asvaltti', 'univormu') 핀란드인의 인명에도 'f'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핀란드어에는 [f]와 'f'가 완전히 토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자 체계에 유입된 음소가 언어에도 바로 흡수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한글 체계에 [f]에 해당하는 글자가 생겨난다면 핀란드어처럼 [f]가 쉽게 유입될 것이다.

일본어에서도 현재 한국어와 비슷한 논쟁을 거쳐서 생겨난 글자가 바로 'ヴ'이다. 이는 외래어의 'vu' 발음을 'bu'와 구별하기 위해 만든 글자로, 1985년에 정식으로 채택되었으나 현재엔 거의 쓰이고 있지 않다. (예: 'ヴァイオリン' 바이올린) 대부분이 'ブ(bu)'로 바뀌었다. (예: ヴァイオリン→バイオリン) 하지만 상표명이나 노래 가사 같은 데서 남아 있기도 하다. (예: 'ルイ・ヴィトン' Louis Vuitton) 일본어의 문자는 한글과 같은 조합형이 아니기 때문에 전산화가 훨씬 쉬웠다. 한국어의 한글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3.2 새 자음 추가 논쟁

한글에 새 자음을 추가하여 현재 나타낼 수 없는 발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주장은 다양한 깊이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처음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할 당시에 최현배가 그러하였듯이, 또 '모던 조선 외래어사전(1937)'에서 나타났듯이, 처음에는 언어학자와 국문학자 중 표음주의 원칙을 삼고 있던 학자들을 위주로 이 주장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외래어에 현용 24자모만을 사용한다는 원칙을 세운 뒤로는 새 한글 자음 추가에 대해서 언어학계는 일축하고 있고, 새 자음 추가에 대한 주장은 언어학 비전공자들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비단 [f]만을 위해서도 제시된 방법과 글자가 헤아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중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던 일부와 그들이 담고 있는 주장과 근거를 소개하고자 한다.

1998년 11월 신동아 발언대에서 신부용 교통환경연구원 원장은 '외래어 표기법 바뀌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행 외래어 표기법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국제화 시대에 역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리를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한글에 변형을 주어 장모음과 된소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v], [f], [r]을 'ㅂ', 'ㅍ', 'ㄹ'과 구별하기 위하여 각각의 글자 아래에 'ㅇ'을 연서하는 옛한글을 이용하자고 주장한다. 같은 신동아 지의 2005년 1월에 보면, 최덕규 한국도로교통사이버연구소장은 한글에 여섯 개의 자음을 추가하여 영어 공부와 발음 교육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 '#ㄱ 밀리', 'ㄴ 바이올린', '페이다')

또 동아일보 2007년 10월 19일자에는 기하학자 최재경 교수가 제시하는 자음들을 소개한다. 같은 해 한국일보 9월 5일자 발언대에서는 김영준 대기과학 박사가 실용적인 외국어 표기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직접 만든 다섯 개의 자음을 제시한다. 설령 전산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더라도 특수기호 '^'를 사용하여 표기할 것을 제시한다.



최재경 교수가 만든 5개 자음과 용례	리버 river	페머 feather
	줌업 zoom up	밸리 valley
	텔레폰 telephone	세븐 seven
		맹큐 Thank you

[그림 III-7] 최재경 교수의 새 자음 다섯 개

영어	한글(컴퓨터)	한글(타자기 또는 수정 안 된 컴퓨터)
File	파일	^파일
Lion	라 이언	^라이언
Violin	바이얼린	^바이얼린
Zebra	지 브라	^지브라
Thousand	사드 우전드	^싸우전드

[그림 III-8] 김영준 박사의 새 자음 다섯 개

반면 아예 발음 기호를 위한 한글을 만들기도 한다. 누리글이나 IKPA(국제 한글 음성 기호) 등은 다양한 언어와 소리를 한글을 바탕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호들이다. 거의 쓰이지 않고 있으나 창안자들은 열심히 보급 활동을 하는 중이다. 최근에도 대전일보 2007년 6월 5일자를 보면 한남대 영어영문학부 김성익 교수는 한글체 영어 발음 기호를 창안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영어나 중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 교육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시킨 한글 표기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높여 하기도 한다. 대개 한글의 기본적인 디자인만을 남겨두고 제자원리나 조합원리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글자들이다.



[그림 III-9] 김성익 교수의 영어 한글 발음 기호

새 자음 추가에 대한 논쟁은 매우 최근에도 불거졌다. 2010년 1월 12일자 조선일보 독자 의견란 '편집자에게'에서 이인철 서울아산병원 울산의대교수가 다섯 개의 새 자음을 제안하며 새로운 한글 외래어 표기법을 주장하자 곧바로 16일 조남호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이 이를 반박하며 지금의 한글에는 더 필요한 자음이 없다고 주장하며, 외국어 발음을 적을 새로운 글자는 외국어 교육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 새로운 글자를 사용하기 위해 출판물과 전자기기 등에 막대한 수정을 가해야 하므로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다시 이를 읽은 황재룡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21일에 방송국 아나운서도 구별하고 있는 외래 자음을 구분하여 표기할 수 없어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음 추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기술적 문제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 반박한다. 이에 바로 다음 날 강성곤 KBS 아나운서가 이를 반박하며 아나운서들은 외래 발음을 사용하지 않으며, 자음 몇 개 추가한다 하더라도 그 발음이 외국어에 가까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지식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솔선수범하여 공적인 자리에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남발하지 않고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란을 종결짓기 위해 조선일보에선 2월 2일의 사설 칼럼란에 찬반 의견을 하나씩 올린 것으로 끝을 맺었다. 찬성 측은 한글 연구회(주: 한글 학회와 다름)를 만들고 회장으로 있는 최성철 씨는 옛한글의 병서 규칙을 이용하여 영어 발음을 표기할 것을 제안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한다. 반면 반대측의 서강대학교 이덕환 교수는 한글이 영어의 발음 기호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며 '파일(file)'과 '파일(pile)'이 구분되지 않는 것은 벌(罰)과 벌(蜂)이 구분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말한다. (부록 4)

3.3 반박

3.2에서 다룬 한글 새 자음 추가 의견은 지금까지 제시된 전부라고 할 수 없다. 조금이라도 한글과 외래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생각이기에 끊임없이 대두되는 문제이며 한 번에 해결되기 어렵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을 일축하는 언어학계가 그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반박을 여기에 정리해 본다.

먼저 한글 새 자음 추가의 논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한글은 확장성이 좋아 모든 발음을 적는데 적합하다.
- 2) 한글에 영어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어 발음에 어려움을 겪는다.
- 3) 한글에 영어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어 다른 단어가 표기상 구별이 되지 않는다.

먼저 1) 부터 보자면, 한글에 대한 자문화 우월주의가 스며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1998년 신부용의 글만 보아도 글의 서두를 일본어와 한국어에서의 외래어를 비교하며 일본어의 외래어 발음을 비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한국어 속 영어 외래어들은 그 발음이 일본어나 다른 언어에 비해 더 원어에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학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한글 새 자음 추가 주장에 따른 개정안들을 보아도 자음 몇 개만 대치되었지 모음과 악센트, 빠르기 등 초분절적 요소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영어 발음에 많이 다가갈 수 없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글의 위대함을 국수주의와 연결시켜 다른 언어에 비해 차별화되고자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외국어 발음 교육 측면에서 근거를 제시한 2) 를 살펴보자. 한국인들의 영어 발음이 원어에 가깝지 않은 것을 외래어를 외국어 발음대로 하지 않고 한국어의 음운 규약 내에서 발음한다는 사실에 이유를 두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 근거이다. 영어 발음의 부실은 외국어 교육의 부실에서 오는 것으로, 언어 형성 시기에 영어에 청각적으로 얼마나 노출되었는가에 달려 있지 한글에 해당 자모가 존재하느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사대주의적 발상을 품고 있는데, 한국어의 문자인 한글을 영어와 기타 외국어의 표기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는 것은 마치 찌개를 수프 그릇에 담는 것과 같은 일로, 자주성을 잃게 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어 발음을 위해 한글을 사용하는 것은 위 조선일보 독자의 견란의 조남호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의 주장대로 외국어 학습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또는 한국의 음성학에서나 사용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파일(pile)’과 ‘파일(file)’ 같은 외래어를 구별해 써야 한다고 하는 주장인 3) 또한 이덕환 교수의 주장대로 고유어의 동음이의어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문맥 속에서 그 차이를 파악해야 한다.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한 외래어들의 동음이의 현상으로 불편을 겪게 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고유어에서의 현상과 동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3.4 견해

3.2와 3.3에서 새 자음 추가에 관한 논쟁의 찬반 담론을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이 논쟁에 관하여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연구 결과는 반대의 근거 중 [f]가 우리말의 음소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만 그것 자체가 바로 어문 규정의 수정으로 이어져야한다는 논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어문 규정은 항상 현실 발음을 고려하여 수정되어 왔으므로, [f]가 완벽히 음소로 자리 잡고, 언중의 욕구가 간절해진다면, 이념을 떠나 어떤 형태로든 생기게 될 것이 새 한글 자음일 것이다.

IV. 결 론

현대 한국어 화자들은 계속해서 외국어와 접촉하며 [f]를 [p^h]로부터 구별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한국어 발화 중간에도 [f]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화자도 증가하고 있음을 설문 조사를 통해 보였다. 어두에 있는 [f]와 같은 경우 응답자의 66%에 해당하는 비율이 이러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화자들은 코드믹싱의 단계를 넘어서 [f]의 완전한 토착화를 외래어에

[f]를 삽입하여 발음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다. 외래어에 [f]를 삽입하여 발음한다는 것은 곧 [f]가 외래 음소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화자들에게 있어서 [f]는 하나의 음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 몰입 교육 정책과 함께 증가하는 이 추세는 미래 한국어에 [f]를 받아들일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문 규정에 반영될 것인가는 또 다른 질문으로, 사회 구성원과 학계 학자들 대부분의 설득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f]가 한국어 속에 침투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윤정(2005). 차용어의 음운론. 영어학의 최근 논점(한국문화사) 중.
- 김방한(1995). 언어학의 이해. 민음사.
- 김현주(2008). 발음 오류에 대한 원인 분석과 교육 방법 모색: 한국인 프랑수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프랑수어문교육학회, 프랑수어문교육 제28집 71-93
- 박창원, 김수현(2004). 외래어 표기 양상의 변천. 국립국어원, 새국어생활 제14권 2호.
- 배양서(1970). 한국외래어사전.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 제58·59·60권
- 신동주(2004).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현황분석 및 교사, 학부모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간 차이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극로(1935). 외래어 표기에 대하여. 한글학회, 한글 제3권 6호.
- 이기문(1996). 현대적 관점에서 본 한글. 국립국어원, 새국어생활 제6권 2호.
- _____ (2006). 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해봉(2004). 한국인과 일본인 영어화자의 영어오류 발음. 현대영어교육학회, 현대영어교육 제5권 1호.
- 임흥빈(1996). 외래어 표기의 역사. 국립국어원, 새국어생활 제6권 4호.
- 정 국(2003). 외래어 표기법과 외국어 발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외국어교육연구논집 제17호
- 정희원(2004).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 국립국어원, 새국어생활 제14권 2호.
- 조규태(1998). 여린 비읍(ㅍ)에 대하여. 한글학회, 한글 제240호, 241호.
- _____ (1998). 훈민정음 창제와 상상력.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소논문집 제4권.
- 최혜원(2001). 외래어 발음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보고서.
- 허재영(1996). 외국어 차용 표기의 문제점. 한말연구모임, 한말연구 제2호
- Auer, P.(1998). Code-Switching in Conversation: Language, Interaction and Identity. Routledge.
- Ho. J. W-Y.(2004). Code-mixing: Linguistic form and socio-cultural meaning. Language Society and Cultur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Society and Culture, Issue 21.
- Hockett, C. F.(1985). Distinguished Lecture: F. American Anthropologist, Issue 87.
- Iverson, G. K. and Lee, A-R.(2006).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Korean Linguistics, Vol 13.
- Lee, J-H.(2005). The Phonology of Loanwords and Lexical Stratification in Korean. 한빛문화사.
- O'Brien, J.(2006). Foreign Consonants in Hindi.
- Shim, R. J-Y.(1994). Englishized Korean: structure, status, and attitudes. World Englishes, Vol. 13, No. 2.
- Walter, H.(1983). La nasale vélaire /ŋ/, un phonème du français?. Langue française. Vol. 60.

부 록

(부록 1) 설문조사 문항

(1) 당신은 P 와 F 를 구분하여 들을 수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잘 모르겠다 ③ 그렇지 않다

(2) 당신은 P 와 F 를 구분하여 소리 낼 수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잘 모르겠다 ③ 그렇지 않다

(3) 다음 외국어를 듣고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언어는 몇 가지가 섞여 있고, 듣는 것은 2번만 가능합니다.

- ① F 를 들었다 ② F 는 들리지 않았지만 P 는 들었다.
③ F 도 P 도 들리지 않았다.

[외국어 음성 파일은 총 12개를 들려주었으며, 파일은 발음 안내 사이트 forvo.com 에서 해당 언어의 모국어 화자가 발음한 것을 사용하였다. 12개의 낱말은 다음과 같다: 1) [영어]split hairs / 2) [이디시어]hesofe / 3) [표준북경어]面临困难(miàn lín kùn nán) / 4) [스웨덴어]Jag talar inte svenska. / 5) [이탈리아어]probabilistico / 6) [러시아어]антифриз(antifriz) / 7) [프랑스어]Je comprends un peu le français. / 8) [독일어]Düsseldorf / 9) [일본어]海辺のカフカ(Umibe no Kafuka) / 10) [영어]plight / 11) [광둥어]文化遗产(man4 faa3 wai4 caan2) / 12) [영어]fear and loathing]

(4) 당신은 한국어로 대화하는 중간에 F 를 사용합니까?

- ① F 가 들어가는 외래어를 사용할 때, 의도적으로, 규칙적으로 F 를 사용하곤 한다. / ② 외래어를 사용할 때, 무의식적으로, 불규칙적으로 F 를 사용하게 된다. / ③ 아주 가끔만, 제한된 어휘에 한해서만 F 를 사용한다. / ④ 외래어든 고유어든 F 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⑤ 기타 [_____]

(4-1) (4번 문항에서 ①, ②, ③을 선택한 경우) F 를 사용하여 발음하는 단어로 무엇이 있습니까? (주관식)

(5) 필(feel) | 패션(fashion) | 팬(fan) / 이 단어들은 F 를 포함한 영어 단어에서 온 외래어들로, F의 자리에 P 가 들어가면 다른 뜻이 되는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하나라도) F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① 비슷한 발음의 다른 단어와 구분하기 위해서
(예: 벗기다(peel), 열정(passion), 판(pan))

예 ② 원어의 발음에 가깝게 하려고

예 ③ 그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 ④ 습관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아니오 ① P 로 발음해도 문맥 상 잘 알아들을 거라 생각해서

아니오 ② F 발음을 잘 하지 못해서

아니오 ③ 외래어도 한국어기 때문에, 한국어에 없는 자음을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기타 [_____]

(6) 플라워(flower) | 풋볼(football) | 포스(force) / 이 단어들은 F 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에서 온 외래어들로, F의 자리에 P 가 들어가도 의미의 변화가 없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하나라도) F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① 혹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예 ② 원어의 발음에 가깝게 하려고

예 ③ 그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 ④ 습관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아니오 ① P 로 발음해도 문맥 상 잘 알아들을 거라 생각해서

아니오 ② F 발음을 잘 하지 못해서

아니오 ③ 외래어도 한국어기 때문에, 한국어에 없는 자음을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기타 [_____]

(7) 셰프(chef) | 프로페셔널(professional) | 소프트(soft) / 이 단어들은 F 가 어중 또는 어말에 있는 영어 단어에서 온 외래어들로, F의 자리에 P 가 들어가도 의미의 변화가 없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하나라도) F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① 혹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예 ② 원어의 발음에 가깝게 하려고

예 ③ 그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 ④ 습관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아니오 ① P 로 발음해도 문맥 상 잘 알아들을 거라 생각해서

아니오 ② F 발음을 잘 하지 못해서

아니오 ③ 외래어도 한국어기 때문에, 한국어에 없는 자음을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기타 [_____]

(8) 다음 단어들은 F 가 들어가지 않는 영어 단어에서 온 외래어들입니다.

파운드(pound) | 포르토프랑스(Port-au-prince) |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러나 일부 한국인들은 이런 단어를 발음할 때에 종종 P 로 발음하여야 할 자리에서 F 로 발음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예 ① 알면서도 자주 경험한다.

예 ② 알면서도 가끔 경험한다.

예 ③ 원어의 정확한 철자를 몰라서 그랬다.

아니오 ① 애초에 F 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아니오 ② F 발음을 사용하지만 원어의 발음을 잘 알기 때문에 P 는 제대로 P 로 발음한다.

기타 [_____]

(9) 아래 단어는 '상상, 공상'이란 뜻을 담고 있는 영어 단어 입니다. / fantasy /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판타지'라는 외래어로서 사용합니다.

당신은 영어를 할 때 'fantasy'를 어떻게 발음합니까? (듣고 선택하기)

- ① [fæntəzi] ② [fantazi] ③ [p^hantadzi]

당신은 한국어를 할 때 '판타지'를 어떻게 발음합니까? (듣고 선택하기)

- ① [p^hanthadzi] ② [fanthadzi] ③ [fænthədzi]

(10) 많은 한국인들이 앞의 문항에서 언급한 단어들을 말할 때 F 를 사용하고, 심지어 방송 아나운서들에게서도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한국어에 없는 자음을 섞어서 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관식)

(11) 2005년 유행했던 MBC 드라마 <안녕, 프란체스카>에 나오는 여배우 박희진('안성택' 역)은 “황당한 시추에이션~” 이라는 유행어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행어를 사용하는 묘미는 “황당한” 의 '황'에 F 를 넣어서 발음하는 데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유행어를 따라 하며 한국어에는 없는 F 발음을 사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오빠'의 ㅍ 대신에 F를 사용하는 등 외래어가 아닌 한국어에 F 를 넣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관식)

(12) F 와 P 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F 발음을 '프, 프'로 옮기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좋다고 생각한다.

② '화/훤/후/휘/호'를 사용하면 좋겠다.

③ F 와 P 를 구별하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④ 기타 의견 [_____]

(13) 이와 같이 한국어에도 F 를 사용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많은 비율의 한국인들이 F 와 P 를 구별하여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자, 일각에서는 한글 자모에 새로운 글자를 추가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ㅍ ㅇㅍ ㅍㅎ ㅍ 'ㅍ ㅎ ㅎ ㅎ

(F 를 표기하기 위하여 제시된 글자들)

- ① 괜찮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한글 자음 추가에 동의한다.
- ② 동의하지 않는다. 새로운 한글 자음 추가는 쓸모없는 짓이다.
- ③ 기타 의견 [_____]

(13-1) (13번 문항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

어떤 글자가 마음에 드십니까?

기타 의견 [_____]

(14) F 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의 음소들 (v, th, dh, z, r, rr 등) 에 대해서도 같은 현상을 관찰한 적 있습니까? 관찰한 적 있다면, 그 예를 '기타'란에 적어주십시오.

- ① (나는) 외래어를 말할 때 등 종종 섞어서 사용한다.
- ② 나는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
- ③ 잘 사용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잘 구별하지 못한다.
- ④ 기타 [_____]

(부록 4) 한글 새 자음 추가 의견

ㅟ·ㅛ·ㅜ … 다양한 의견 쏟아져 언어학자들은 ‘새 문자’ 주장 일축

외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한글 새 문자 도입에 대해 독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황일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유럽의 여러 나라는 자기 언어 특유의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 부호를 첨가하여 사용하는 나라가 많다”며 부호 “˘”를 첨가하여 발음을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f’ = ㅟ, ‘v’ = ㅛ, ‘r’ = ㄹ, ‘th(θ)’ = ㅜ, ‘th(ð)’ = ㅝ, ‘z’ = ㅞ 등이다. 최기현(회사원·과주시 금촌동)씨와 인윤식(공인중개사·서울 동작동)씨도 같은 의견이었다.

새로운 표기법 개발에 동의하면서 창제 당시 훈민정음의 글자를 부활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하유상(극작가)씨는 ‘옛 이음(ㅇ)’ ‘반치음(Δ)’ ‘순경음 ㅁ’ 등 지금은 사라진 옛 글자를 부활해 표기에 활용하자고 했다. 송필순 제주대 석좌교수는 ‘f’ = ㅟ, ‘ph’ = ㅟᄒ, ‘th(θ)’ = ㅜᄒ, ‘th(ð)’ = ㅝᄒ 등으로 기존 한글을 활용하여 외국어 표기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원익(한국방송대 경영학과 4학년)씨는 새 문자 만들기 공모전을 열자고 했고, 정환영 한양대 명예교수는 “외래어 표기용으로 몇 개의 문자를 첨가했다고 해서 한글을 오손시킨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새 문자 도입을 지지했다. 이에 대한 반론은 대부분 “한글은 외국어를 표기하는 수단이 아니다”는 의견이었다. 언어학자들은 대부분 한글 새 문자 도입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한글 새문자 의견

발음	한글 표기				
f	ㅟ	ㅟ	ㅟᄒ	ᄒㅟ	ㅟᄒ
v	ㅛ	ㅛ	ㅛᄒ	ᄒㅛ	ㅛᄒ
r, l	ㄹ	ㄹ	ㄹᄒ(l)		
th	ㅜ	ㅜ	ㅜᄒ	ᄒㅜ	ㅜᄒ
z	ㅞ	ㅞ	ㅞᄒ		